

1.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받은 부탁은 무엇이었나요?

- 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세요.
- ② 형더러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알려주세요.
- ③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2.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 ① 하늘나라에 재산을 쌓는 사람
- ②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
- ③ 자신을 위해서만 재화를 쫓는 사람

3.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무엇을 들어 말씀하시나요?

- ① 사진            ② 그림
- ③ 책                ④ 비유

4.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채워보세요.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에 달려있지 않다.”

정답은 8월 9일(금) 까지 우편(주보하단참조)으로 보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 재산에 달려 있지 않음을 가르쳐 주세요. 물론, 돈을 벌거나 소유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나 소유물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경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에서 "어리석은 자야!"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부자는 자신의 가족, 이웃에 대한 사랑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자신만이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보물은 무엇인가요? 갖고 싶었던 옷? 장난감? 핸드폰? 많은 것을 갖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들을 이웃에게 나눠 줄 수 있고, 돈이 먼저가 아닌, 봉사하는 삶으로 채워져 있을 때 진정한 보물을 찾게 되지 않을까요?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에게 남는 것은 다 자선으로 베풀고,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 하지 마라." (토비 4:16) 중요한 것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나눔으로써 하나가 되었을 때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연중 제 18주일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눅카 12, 15)



© Boyeom

성당

학년

이름

성명



1독서 **여행**

✦ 코헬렛의 말씀입니다. 1,2; 2,21-23

2 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2,21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애쓰고서는 애쓰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제 몫을 넘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또한 허무요 커다란 불행이다. 22 그렇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그 모든 노고와 노심으로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23 그의 나날은 근심이요 그의 일은 걱정이며 밤에도 그의 마음은 쉴 줄을 모르니 이 또한 허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2독서 **여행**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3,1-5.9-11

형제 여러분, 1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2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3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4 여러분의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5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9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10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11 여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할례 받은 이도 할례 받지 않은 이도, 야만인도, 스키티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여행**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13-21

그때에 13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14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15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1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17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18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19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20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이 되겠느냐?’ 21 자신을 위해서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마리아수녀의 주일 복음 그림

- 바오로딸쿤텐츠

